

LG유플러스-보령제약 헬스케어 협력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공동추진 ...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와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양사는 5월15일 서울 종로구 보령제약 본사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스마트헬스 플랫폼과 보령제약의 헬스케어 사업을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양사 임직원으로 공동투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LG유플러스 노세용 C&D단장은 “LG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 인프라와 보령제약 그룹의 사업역량을 합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스마트헬스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 김광호 대표는 “미래의 융합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제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6>